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 NOW : 2014.11 : NO.6 : 서울독립영화제

02 상구네

14 미디토리

06 루스 이 소니도스

10 꾸러기스튜디오

4색 스펙트럼 독립영화 제작사

17 ISSUE 양심적 병역 거부: 김경묵-민용근 대담

20 TELL ME SOMETHING 이지연 **21 RELAY TALK** 전병원 **22** 김이환의 **SHORT STORY** 극장전 4

행복한 일가족 영화 공동체

민중의 세계사 만드는 가족 제작사
상구네

독립영화계의 '큰 형님' 김태일 감독과 그의 가족이자 영화 제작사인 '상구네'를 만났다. 김태일 감독은 1990년대 초 푸른영상에서 〈원진별곡〉,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4월 9일〉을 통해 노동 재해, 양심수, 인민혁명당 사건 등을 다루면서 시대와 씨름했다. 최근에는 '민중의 세계사' 10부작을 기획하여 5.18 민중항쟁을 다룬 〈오월愛〉와 캄보디아 부농족의 생활상을 다룬 〈웰랑 뜨레이〉를 연출했다. 이 기획이 시작되면서 가족 공동 제작 시스템인 상구네도 꾸려졌다. 인터뷰 당시 상구네는 민중의 세계사 세 번째 작품의 2차 촬영차 팔레스타인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보다 훌쩍 커 버린 상구와 인터뷰 때문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다며 새침해 있던 송이, 그리고 후일 아이들이 독립해도 둘이서라도 영화를 찍으러 다니겠다는 김태일, 주로미 감독으로부터 상구네의 가족사와 영화사를 듣고 왔다.

부부 두 사람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자.

김태일(이하 **김**) | 그 이야기는 당신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나는 술을 가져올게. (김태일 감독은 막걸리를 사 오고 직접 전을 부쳐 술상을 내오느라 30분 넘게 자리를 비웠다.)

주로미(이하 **주**) | 둘이 동갑인데 32살 때, 1994년 2월에 만났다. 우리 신랑은 푸른영상에 있었고, 난 서초동 빈민 지역 비닐하우스촌에서 활동 중이었다. 김동원 감독 아내분이랑 나랑 같이 일하던 후배가 서로 짜고서는 만남을 주선했다. "언니, '찍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 봐." 그러고는 바로 다음 날 약속을 잡더라. 우리 신랑은 그때 최소한 네 번은 만나야 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소개팅인데 너무 일방적이었네.

주 | 네 번까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만난 날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기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거고 평생 가난하게 작업하면서 살 거다. 그런 이야기를 엄청 솔직하게 많이 했다. 오래 사귄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술집 문이 닫힐 때까지 얘기를 나눴다. 그때 신랑은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을 촬영한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을 작업 중이었고, 난 내 일터에서 수위로 일하고 계시던 장기수 선생님 한 분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했고, 그 부분이 나한테 신뢰를 줬던 것 같다. 네 번째 만나는 날 내가 계속 더 만나자고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던지.

오랫동안 김태일 감독을 지켜봤는데, 영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변화의 시기가 있었나?

주 | 우리 신랑 작업 스타일이 바뀐 거는 귀농하려고 진주에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인 것 같다. 1년 반 동안 농사는 시작도 못 해 보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불안해 보였고, 이렇게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전세금으로 1톤 트럭을 사서 배추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송이가 임신이 된 거다. 이건 서울로 다시 올라가라는 계시다 싶어서 미련 없이 이사했다. 그즈음 남편이 100일 걷기를 가서 다큐멘터리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오겠다고 했다.

김 | (술상을 봐 와서 막걸리를 권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업에 타격을 주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100일 걷기 운동이 시작됐다. 지인한테 물어서 동참했는데, 걸으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같이 걷는 사람들한테, 나 민중의 세계사라는 걸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고.

그 직후 만든 작품이 〈길동무〉와 〈농민약국〉인데, 이때부터 영화의 무게중심이 정치적인 사안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로 바뀐 것 같다.

김 |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 같다. 다큐멘터리를 시작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인혁당, 통혁당, 남민련 사건 같은 걸 다뤘다. 근데 〈4월 9일〉에서 김낙중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할 수 없다고. 난 그분들에게 당위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질문 자체가 그분들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는 좌절했다. 그 후에 진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동안, 또 내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한 거겠지.

민중의 세계사가 그때 했던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물인가?

김 | 최소한 사회적 흐름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행복하게 흘러간다면 내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 민중의 세계사는 서양의 자본주의 기독교 문화가 완벽하게 세상을 재편해 버렸고 그러한 제1세계의 사고방식과 의식 구조가 제3세계에 고통을 준다는 고

주로미 감독과 김태일 감독

민으로부터 나왔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역사와 시선이 있다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획했다. 남들이 보기엔 거창할 것 같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 소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주로미 감독은 민중의 세계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

주 | 2001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있을 때, 내 생일날 남편이 네루의 〈세계사 편력〉을 선물로 줬다. 그러면서 민중의 세계사를 작업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너무 신선하고 좋더라. 꼭 하라고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월愛〉가 첫 작품인데, 거의 10년이 지나서 첫 작품이 나온 거잖아. 우린 그걸 미뤄졌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역시 사람이 꿈을 꾸면 된다고. 지금 3편까지 온 것도 신기하다.

푸른영상이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작업을 했고, 혼자서도 작업을 했는데, 가족 제작 시스템인 '상구네'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들과 어떻게 다른가?

김 | 푸른영상은 결혼하기 전 젊은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작업하는 공간으로는 참 좋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생활 보장이 어렵다. 나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하면서도 좀 더 전문성 내지는 노하우를 쌓아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촬영감독, 편집기사를 다 연결해야 하는데 그게 또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결국 나한테 맞는 안정적인 구조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에 아마추어 냄새는 풍기지만 가족 시스템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상구네 이름 속에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간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오월愛〉와 〈웰랑 뜨레이〉를 보면 상구네 작업은 미리 장소 헌팅이나 인물 섭외 없이 오랜 시간 무작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방식이다.

김 | 대부분의 방송을 보면 미리 사전에 인물, 현장을 선정하고, 현지 안내인을 통해 작업을 하는데, 나는 그 방식으로는 현지 주민들 내면의 이야기나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고 본다. 가장 힘든 방식이긴 해도 지금 이 방식이 우리 가족에게 제일 맞다고 생각한다.

송이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이상적이면서도 힘든 일일 텐데.

주 | 시행착오는 갈수록 커진다. 〈오월愛〉 때는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우리 둘만 움직일 때도 있었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봐 줘야 한다는 게 문제였다. 〈웰랑 뜨레이〉에는 작품 속에 상구가 투덜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다 사실이다. 송이는 의외로 너무 잘 지냈는데, 상구는 우리도 눈치를 못 챘지만 사춘기였던 것 같다. 가족들 간에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면에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우리도 아이들에게 투덜거릴 때가 있다.

올해 초 팔레스타인에서 1차 촬영을 하고 왔는데, 지역적인 특성상 전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다.

주 |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있었다. 게다가 정해 놓고 간 것도 없어서 정신적으로 더 피곤했다.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3일간 머물 때, 숙소에 가족 넷이 앉아만 있는데도 숨이 턱턱 막혔다. 그때 남편이 술을 먹고 고백하기를, 나 이렇게는 작업을 못하겠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절대 가족이랑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김 | 어떻게 보면 가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되게 끈끈하고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르게 보면 금방 쪼개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소모해야 하고 투자해야 할 에너지가 많다.

주 | 그때 상구가 다 듣고 옆에 와서는, "아빠, 힘들 때일수록 느긋하게 가요."라는 말을 했다. 상구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김태일 감독이 베테랑이긴 하지만 가족들 눈에는 현장에서 실수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다.

주 | 물론이다. 말해도 되나? 남편이 완벽주의자는 아니고 노력형이다. 난 또 그런 부분을 좋아하고, 〈웰랑 뜨레이〉 때 뜨레이네 부모님

상구

께서 농사일 도와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가족을 초대한 적이 있다. 그때 프놈펜에서 온 통역도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비위생적이라고 술을 안 마시니까 남편이 모든 술을 다 받아 마셨다. 그런데 하필 그날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를 했었는데 남편이 중간에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다. 뜨레이랑 뜨레이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민중의 세계사를 10부작으로 기획했는데, 현재 한 편당 2년 이상 걸린 것 같다.

김 | 꿈은 늘 가져야 하니까 10편까지 꼭 하고 싶다. 욕심이 있다면 이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 보고 싶다. 사실 이 작업이 돈은 많이 들고 결과물은 적다는 느낌도 있다. 한국 문제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아서 우리 작품들의 흐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고.

김 | 국내에 있는 많은 아픔들을 독립 다큐멘터리 진영이 다 작업들을 하시잖아. 그 덕분에 우리는 숨 돌리면서 이 작업을 하는 거다.

김 | 그게 연대의 힘이다. 내가 꿈꾸는 것도 내 역할을 다하는 거다. 끝까지 카메라 들고 편집하고 해야지!

상구네의 미래는 어떨까?

김 | 상구네 미래는 결국 송이와 상구다. 두 아이가 엄마 아빠 만나서 상구네를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욕을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웃음)

주 | 미래에는 각자 다 독립할 것 같다. 상구랑 송이는 각자 상구네 이름 안에서 독립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이 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취재 이도훈 / 사진 박지수

상구가 말하는 **상구네**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이름은 김상구이고 18살이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 따라서 현장에서 장비 들고 다니거나 가끔 촬영도 하면서 자잘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평소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학교를 그만두면서부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이것저것 했는데,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소설을 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책방 '풀무질'에서 하는 모임에도 나가고 있다. 거기서 삼촌뻘 되는 분들이랑 같이 시랑 소설에서부터 철학, 인문학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배우고 있다.

아버지 영화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한다면.

최근에 다시 보진 않았다. 초기작 중에는 〈원진별곡〉을 봤는데, 되게 미숙하더라.(웃음) 아버지한테도 말했다. 만듦새가 별로다,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 하나로 결말까지 밀어붙이는 거 같다고. 〈길동무〉도 그랬다. 좋은 영화지만 그때 아버지가 방황하고 있을 때였고, 버팀목이 없어서 그런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더라.

상구네 첫 작품 〈오월愛〉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나?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출연하신 분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트라우마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힘드셔서 약도 많이 드시는 분들인데 늘 밝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아버지가 영화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웰랑 뜨레이〉에서는 아버지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농사일이 많아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던 건가?

힘든 것보다도 너무 불안했다. 일단 낯설기도 했고, 믿을 만한 분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 거라서 걱정이 많았다. 처음 촬영 때는 아버지가 못 미더웠다. 현지 주민들이랑 그냥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무작정 찍고 있으니까, 도대체 영화는 언제 찍는 거냐며 말했던 거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

부모님의 어떤 점이 가장 존경스럽나?

어머니랑 아버지의 공통점은, 어떤 일이든 끈질기게 열심히 한다는 거다.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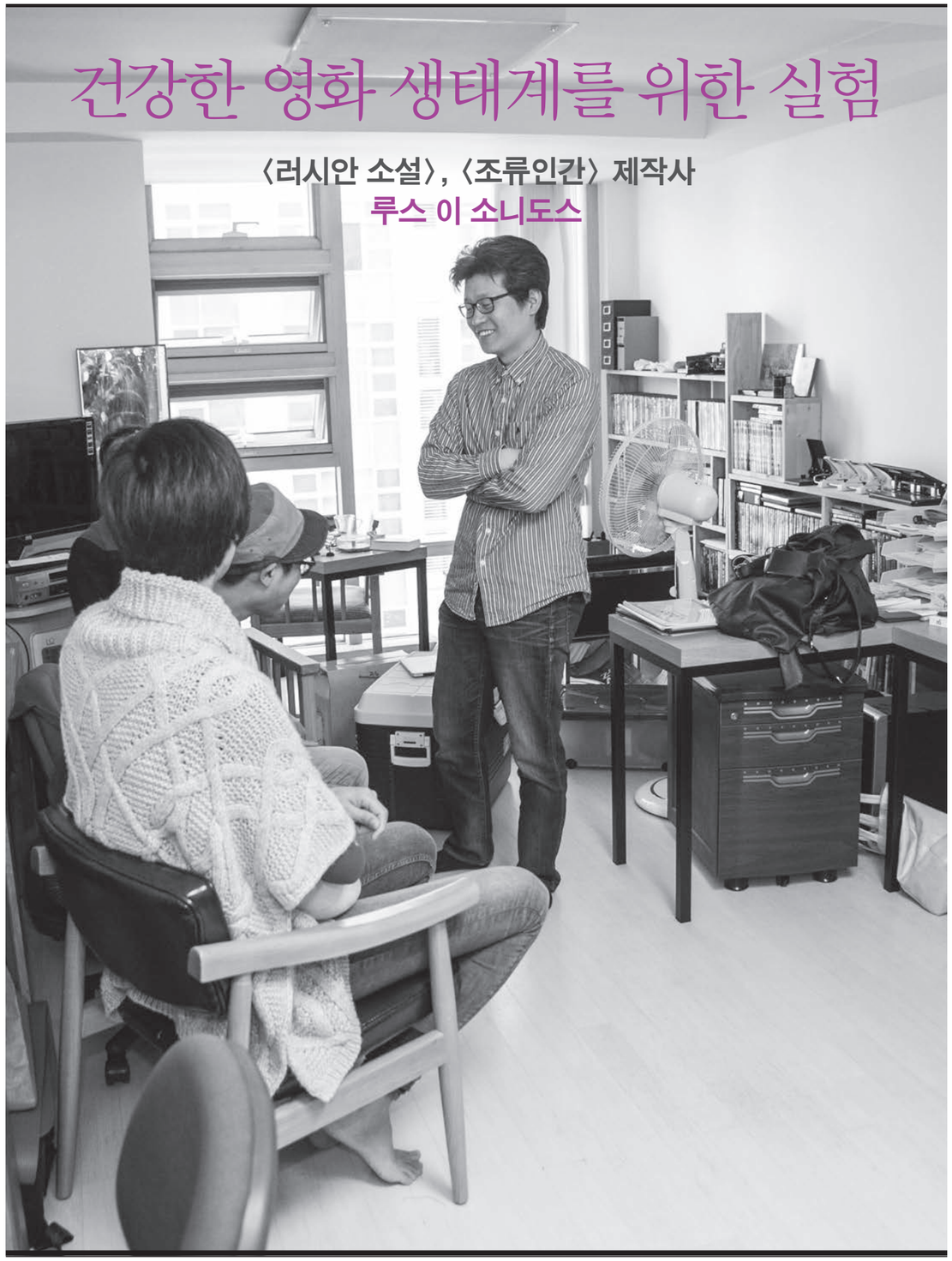
후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선택을 할 때 후회 없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상구네'가 본인 이름에서 따온 건데, 좋겠다.

커서 독립하면 소송 걸 거다!

건강한 영화 생태계를 위한 실험

〈러시안 소설〉, 〈조류인간〉 제작사
루스 이 소니도스



2005년 〈좋은 배우〉로 데뷔한 신연식 감독의 이후 필모그래피는 한 제작사의 역사와 그대로 겹친다. 〈페어러브〉(2009), 〈러시안 소설〉(2012), 〈배우는 배우다〉(2013), 〈조류인간〉(2014)을 연달아 제작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이 제작사의 이름은 '루스 이 소니도스(Luz y Sonidos)'다. 광화문에 자리 잡은 영화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니, 대표인 신연식 감독이 주섬주섬 테이블을 치우며 취재진을 맞이했다.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 공간이라기보다는, 일 있을 때 알아서 출퇴근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들락날락하는 사랑방 같은 곳이라 한다. 이 사랑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감독이자 제작자인 신연식 '대표'에게서 그 속사정들을 들었다.

평소 감독 입장에서 작품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했을 텐데, 오늘은 영화사 대표 입장에서 제작에 관련된 얘기들을 듣고 싶다. 어떻게 제작에 뛰어들게 됐나?

원래 제작을 해 볼 생각은 없었다. 〈좋은 배우〉가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되고 난 뒤에, 몇몇 제작사에서 감독 제안이 왔다. 그때 한 제작사가 5억 미만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해서, 5억에 맞춰 〈페어러브〉를 준비했다. 그런데 그 제작사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제작사를 옮겨야 했다. 3년 동안 제작사를 찾다 실패하고는, 직접 제작사를 차렸다.

전세금을 뺐다고 들었다.

누가 들으면 20억짜리 전셋집에서 산 줄 알겠다.(웃음) 그때 끝내 제작사를 찾지 못해 스태프들에게 해산 선언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방을 빼 달라더라. 홧김에 그 전세금 1억으로 제작사를 차린 거다. 그렇게 멋모르고 신생 제작사를 만들었으니, 손해를 심하게 봤다. 만약 지금 〈페어러브〉를 했다면 그때처럼 절대 손해 안 보게 만들었을 거다.

'루스 이 소니도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스페인어로 루스(Luz)가 빛, 소니도스(Sonidos)가 사운드다. 빛과 소리, 영화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다. 원래 전공이 스페인어라 20대 때 도피성 유학으로 멕시코에 간 적이 있다. 그때 마야 유적지 피라미드에서 하는 '루스 이 소니도스' 쇼를 봤다. 고대의 기우제 같은 걸 재현하는 쇼인데, 그걸 보고 언젠가 이 이름을 꼭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빛과 소리'를 영화로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원들은 누가 있나?

정해진 구성원은 없는데 꾸준하게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있다. 일단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촬영이 있다고 해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스태프들이다.(웃음)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리진 않는다.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하고 배우도 오디션 안 보고 한다. 소개를 통해 만나서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제안한다. 폐가 될 것 같으면 같이하자고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나와 작품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태프들이 남아 있는 거다. 각자 역할은 다들 자기 영역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제각기 알아서 판단한다. 난 큰 그림만 그릴 뿐이다.

김지형 프로듀서는 〈페어러브〉 때부터 꾸준히 함께 작업해 왔는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김지형 | 잡다한 거 다 한다. 우리가 없는 살림에서 운영을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은 만들었다. 회사 운영에서 신연식 감독이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난 스케줄 관리와 세금 등 전반적인 실무를 처리한다. 신연식 감독이 천재 끼가 있어서 워낙 벌이는 일들이 많아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웃음) 우선 신연식 감독이 이러이러한 시나리오 쓰겠다고 기획을 하면서 상의를 한다. 그럼 나는 재미있겠는지 없겠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만 한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같이 의논한다. 저예산으로 갈 건지 상업영화로 갈 건지 이야기하며 예산을 짜고, 펀딩을 어디서 할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최대한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한다.

〈페어러브〉 이후 〈러시안 소설〉까지 3년이라는 틈이 있었다. 그 이후엔 매년 한 작품씩 내놓고 있는데.

그 3년은 한국 영화산업의 부조리를 담고 있다. 〈페어러브〉 만들고 은행 빚도 좀 생겼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제작 경험이 없었고 아는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상업영화를 몇 편 하려 했었는데 진행이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상업영화를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회의감도 많이 들었다.

한국 영화산업의 부조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난 한국 영화산업이 탐욕의 구조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영화 수

신연식 감독

익의 40%를 제작사가 요구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제작사가 수익의 40%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기획/개발이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기획/개발은 아니다. 예전에 어느 제작사가 외국 원작의 판권을 사 와서 나한테 감독을 해 달라고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왜 사 왔는지 물어보니, 좋은 감독을 만나면 영화가 잘될 것 같아서라고 했다. 이렇게 정작 초기 리스크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사람은 감독이다. 대기업 독점도 문제지만, 제작사와 감독의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다.

흔히 '영화감독'이라고 하면 멋있고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되는데.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념이다. 사실 엄청나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리 저예산 독립영화라도 기본적으로 영화는 산업이다. 제작자들은 계약 때는 감독을 뺀질나게 찾아다니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데다 지금의 감독 계약서에는 업무도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계약하면 감독은 죽든 살든 영화가 성공할 때까지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이게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제작사에서 영화를 안 찍거나, 같이 하더라도 공동 제작 아니면 안 할 거다.

3년 만에 〈러시안 소설〉을 기획, 제작, 연출하며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러시안 소설〉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실험을 한 영화다. '김앤장'이라고 유명한 로펌이 있다. 거기 다니는 변호사 친구가 지인들 몇 분한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천만 원 정도씩 개인 투자를 해서 〈러시안 소설〉을 제작했다. 원래는 스태프가 더 있었는데 못 오게 하고, 스태프 3명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만들었다. 모든 악조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에서 영화의 내용, 플롯, 스타일의 최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만약 결과를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영화 안 만들었을 거다. 예를 들어, 이 작품으로 영화제를 가야지, 이 작품을 마켓에서 얼마만큼 팔아야지 같은 계산을 했다면 그런 무지막지한 형식의 영화는 안 만들었겠지.(웃음)

〈배우는 배우다〉는 김기덕필름과 공동으로 제작했다. 김기덕 감독과 원래 친한 사이였나?

김기덕 감독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배우는 배우다〉는 원래 김기덕 감독이 자체적으로 하려던 건데, 투자사 NEW에서 나를 감독으로 조인시킨 거다. 그래서 NEW의 장경익 대표, 김기덕 감독, 나 이렇게 셋이 만나 예산 규모를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그때 김기덕 감독이 제작사가 있으면 공동 제작으로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후에 김기덕 감독이 자기 작품 하느라 바빠서 별달리 관여하지 않았다. 시나리오만 김기덕 감독 몫이었지, 스태프들 꾸리는 것부터 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제작 진행을 했다. 사실 이런 게 나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다. 〈배우는 배우다〉는 내가 시나리오를 받아 연출한 케이스고, 앞으로는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다른 감독들이 연출할 거다. 시리즈물이다. 기대해도 좋다.(웃음)

개봉을 앞두고 있는 〈조류인간〉은 어떤가? 전주국제영화제 디지털삼인삼색 중 하나고, 작년에 텀블벅으로 클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텀블벅은 실패했다. 다시는 안 할 생각이다.(웃음) 〈조류인간〉은 〈러시안 소설〉보다는 약간 큰 사이즈에서 상업적인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시도해 본 영화다. 그런 만큼 〈러시안 소설〉보다는 대중을 공략하고 만들어서 일반 관객들이 보기 편할 거다. 그래서 흥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코어가 날지 궁금하다. 완전 상업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독립영화 진영에서는 상업적인 작품일 거다. 어쨌거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다.

신작 〈프랑스 영화처럼〉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에피소드 네 편 중 세 편이 끝났고, 나머지 한 편은 조만간 찍을 예정이다. 공개는 내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시간날 때마다 꾸준히 하려고 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이돌을 쓰지만, 본격적으로 신인 배우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싶다. 영화제나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데서 오디션도 보면서 신인들을 발굴하고 싶다.

신인 배우들을 위한 연기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러시안 소설〉이나 〈배우는 배우다〉에 출연한 배우들 중 다수가 거기서 배운 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

다른 감독들도 궁금해 한다. 왜 연기 전공도 아닌데 그런 걸 하게 됐냐고. 이준익 감독이 그걸 물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다. 감독님은 처음부터 좋은 배우하고 영화 만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배우 레슨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고. 난 철저하게 나의 필요에 의해 한 거다. 만약 처음부터 송강호나 설경구 같은 배우들과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연기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연기 레슨을 하게 됐다. 물론 내가 연기를 다 가르치는 건 아니다. 배우에 따라서 배우에게 맞고 필요한 전문가를 붙인다.

김지형 프로듀서

배우를 발굴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정우, 하지원, 손예진, 이세 사람이 5년 동안 쉰다고 선언하면, 영화계는 그야말로 대재앙일 거라고. 당장 내 주변에서 밥줄 끊기는 감독이 한둘이 아니다.(웃음)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재앙이다. 여기에 한국 영화산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요리로 쳤을 때, 재료가 다양하면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법이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배우들이 없으니까 다양한 영화가 나올 수가 없다. 몇몇 스타 배우에게 의존하고 있으니 비슷한 영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양한 배우들이 많아질수록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좋은 배우〉 300만 원, 〈페어러브〉 순제작비 1억 원, 〈러시안 소설〉 3,000만 원, 〈배우는 배우다〉 순제작비 9억 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저예산으로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동력은 뭔가?

내 마음대로 영화를 찍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다양한 영화가 나오려면 다양한 제작 방식도 필요하다. 저예산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 싶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사실 감독으로서 아직도 습작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 나름의 데이터가 축적될 것 같다.

다양한 제작 방식의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영화를 만들 때 왜 이 영화를 이 사이즈로 해야 하는지, 영화 만드는 사람이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그에 따른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억짜리 영화를 할 때는 이것이 어떤 영화이고 왜 1억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1억의 제작 방식, 프리 방식, 마케팅 방식, 배급 방식 모두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20억짜리에 죄다 맞춰서 한다. 이런 획일화에는 사실 누군가의 희생과 과부하가 내포돼 있다.

건강한 영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

감독조합에서 표준계약서 작업을 하고 있다. 내가 겪은 경험들 때문에 만드는 거다. 지금은 제작사를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거다. 오히려 스스로 제작자이기도 하니,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거라고 할까. 내 이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대로 두는 게 좋다.(웃음) 하지만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화가 서너 개 되고, 내년부터는 제작을 많이 할 예정이다. 1년 동안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준익 감독과 다른 감독의 작품들을 제작할 거다. 이준익 감독하고의 공동 작업은 예술인 시리즈로 해서 열 편 정도 나올 예정이다. 그중 다섯 편은 선배 감독들과 함께하고 다섯 편은 또래 감독들과 함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준익 감독과는 한국 근현대사 인물사 시리즈도 할 거다. 이건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일부만 참여할 수도 있다. 별도로 내가 시나리오 쓰고 다른 감독들이 연출하는 상업영화도 준비하고 있다. 배급도 할 예정이다.

취재 최혁규 / 사진 강성일

초특급 꾸러기 만세!

〈숫호구〉의 소수정예 제작사
꾸러기스튜디오

올여름 〈숫호구〉라는 엉뚱하고 뻔뻔한 영화 한 편이 관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B급도 아닌 C급을 표방한 이 '웃기는' 영화를 만든 이들도 관심을 모았다.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 웃음 폭풍을 안기는 기발한 패러디 영상들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이었다. 〈숫호구〉의 제작사 꾸러기스튜디오가 만들어진 것은 2005년. 그사이 영화를 만들고, 극장을 짓고, 영화제를 만들고, 영상을 가르치고, 책을 내며, 어린아이의 키가 자라듯 성장해 왔다. "꾸러기란 말이 좋아요. 잠꾸러기, 장난꾸러기 같은 말엔 '마니아'란 의미도 숨어 있고, 어리고 패기 넘치는 이미지도 들어 있고." 내년이면 벌써 10대가 되는 '꾸러기'가 자라 온 그동안의 얘기들을, 감독이자 배우인 백승기 대표가 조근조근 들려줬다.

꾸러기스튜디오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정확히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한 편의 영화를 잘 완성하기보다는 영화를 만드는 세계를 갖추는 데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꾸러기스튜디오는 영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출사표 같은 거였다. 한 편의 영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색깔 있는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싶단 생각도 담겨 있었고.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향을 받아 '영화사'나 '엔터테인먼트' 대신 '스튜디오'로 이름 붙였다. 지브리는 꾸준히 자신들의 스타일을 만들어 온 곳이잖나. "우린 애니메이션 팀은 아니지만, 한국의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곳이 되자"는 뜻이다. '꾸러기' 역시 순우리말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지브리'의 뜻을 모르면서도 고유명사로 어렵잖게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레 입에 달라붙는 단어를 써 보자 해서 붙인 이름이다.

원래 미술 전공인데, 영화'계' 안으로 뛰어들면서 맞닥뜨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어려움을 돌파한 과정도 남달랐을 테고.

말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위기가 많았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잖나. 좋은 각본과, 좋은 연기를 하는 배우들과, 좋은 장비들, 편집 기술 등등등. 이 많은 조건 중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니, 전체 균형이 잘 맞아야 하고. 실력자들을 모두 모으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자본이 개입하게 되기도 하겠고. 근데 난 소위 말하는 A급은 그 무엇도 가질 수가 없었다. 돈도 커리어도 없이 오로지 영화를 '하고 싶다'는 딱 네 글자 위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렇지만 매번 위기에 위축되기보단 차라리 그걸 동력으로 삼자는 생각을 했다. 결론적으로, 지금 내 곁에 실재하는 것들, 내가 내 것 삼아 쓸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이런 방식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점차 생겼고. "이게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본 게 아닐까 싶다. 누가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씹는다."고 비유했는데, 맞는 표현 같다. 물론 잇몸으로 씹으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씹으면 씹히잖아?

내년이면 꾸러기스튜디오 10주년이다.

올해가 내겐 아주 남다른 해다. 군에서 제대할 때, 반드시 세상에 나가 감독이 돼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그게 2004년 7월이었는데, 2014년 8월에 〈숫호구〉가 개봉했으니 딱 10년 걸렸다. 그동안 영화를 하고 싶은 이가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경험한 것 같다. 영화사를 만들고, 극장은 만들었다가 문을 닫고, 영화제를 만들었던 적도 있고, 남들이 영화로 인정해 주지 않는 우리들만의 영화를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 관객과 소통했고. 자랑할 거리라면, 그 시간 동안 도전 정신과 패기 하나는 후회 없이 발휘했단 것.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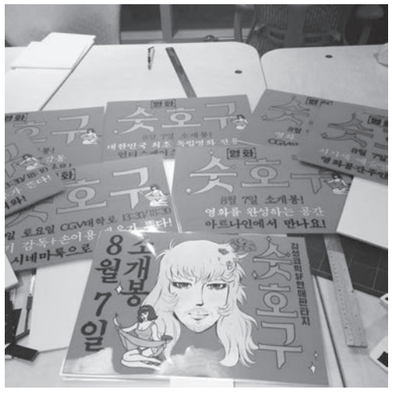
작품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게 독특하다.

영화는 관객에게 보여 주기 위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영화일지라도, 그 누구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영화도 누군가 보고 피드백을 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이 그 활로가 됐다. 꾸러기스튜디오 블로그를 오픈해 인터넷 상영관 삼은 거다. 조회 수와 댓글도 항상 꼼꼼히 확인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봐 준다는 게 실감날수록 큰 힘을 얻었다.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패러디'란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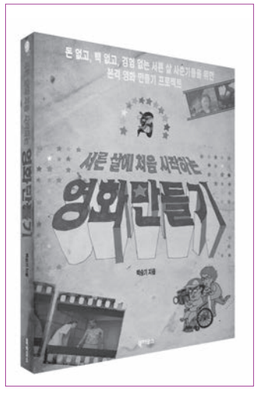
블록버스터 영화 패러디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꾸러기 나름의 패기와 도전 정신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처음 '꾸러기 정신'

백승기 감독



〈숫호구〉 개봉 당시 직접 제작한 홍보물



백승기 감독이 출간한 영화 제작 가이드

지금은 문을 닫은 동네극장 DGV

으로 내건 게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비싼 영화를 찍자'는 거였다. 〈다빈치 코드〉나 〈아바타〉, 〈가위손〉 같은 큰 영화들을 패러디했다. 단돈 몇 만 원으로도 이 영화들을 구현할 수 있단 걸 보여주자고 생각했다.

3D 작업에도 관심을 보였다.

〈아바타〉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어렸을 때 처음 영화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며 '어떻게 인간이 이런 세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였다. 〈아바타〉, 그리고 최근 〈그래비티〉가 다시 그 경험을 되살려 줬다. 〈그래비티〉는 영화라기보단 차라리 영화 너머 또 다른 지평 같기도 하고, 〈숫호구〉 개봉 후에 지금 두 번째 영화 촬영이 마무리된 단계인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세 번째 영화가 〈그래비티〉를 겨냥했다. 누가 한 걸 보면, 어설프게라도 내 손으로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3D도 그래서 해 보고 싶었던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몸에 색칠을 한 채로 촬영을 하고, 양쪽에 빨강 파랑 셀로판지를 붙인 안경을 쓴 채로 관람을 하니 결과물이 제법 3D로 보이더라.

고다르보다 먼저 3D의 세계에 뛰어든 거 아닌가?

물론 그분이 나보다 더 완전한 3D 작업을 하셨겠지만.(웃음) 언젠간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의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얼추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패러디 이상을 못 해 봐서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인터넷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로 인식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더 영화적인 영화를 꿈꾸는 마음도 있다. 다만 아직은 〈숫호구〉처럼 DSLR로 찍은 영화도 영화로 감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당분간은 계속 C급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

첫 극장 개봉작인 〈숫호구〉에 얽힌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다.

〈숫호구〉는 '불사조 같은 영화'라고들 얘기한다. 1년간 스튜디오가 서울로 자리를 옮긴 적이 있다. 성충경 전 대표와 함께 돈도 벌고 영화도 배워 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론 통장에 딱 백만 원 남기고 돌아왔다. 이 돈 갖고 우리의 마지막을 불태워 보자면서 만든 게 〈숫호구〉다. 찍으면서도 원래 캐스팅한 여배우가 중간에 떠나 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찍고 나선 여러 영화제에 출품을 했는데 다 떨어졌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발표 전날까지 신세 한탄을 했는데, 상영도 하고 상까지 받게 됐다. 그 뒤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영화제 상영 후 1년간 배급이 안 되는 거다. 애만 태우다 그냥 내 손으로 P2P사이트에 올리려는 생각까지 했다. '선정적인 문구를 좀 달까……' 하면서.(웃음) 근데 그때 또 기적같이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를 만나 극장 개봉을 하게 됐다. 제작 3년 만에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된 거다.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끝까지 모르는구나 싶더라.

꾸러기스튜디오는 고정 멤버 대신 수시로 멤버를 바꿔 가며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감독 겸 배우, 디자인, 홍보 담당, 이렇게 세 명이 고정 멤버였다. 촬영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참여 가능한 멤버를 구하곤 했고. 하지만 수익이 없는 구조다 보니 결국 시간이 지나 두 멤버가 생업을 찾아 떠나고, 나 혼자 스튜디오를 꾸렸다. 이후 성충경 전 대표와 둘이서 운영하다 〈숫호구〉가 끝나고 또다시 이별을 했고. 지금 고정 멤버는 나 하나다. 난 스튜디오를 처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 계속 유지할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걸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그때 멤버를 모으는데, 고정 멤버는 없어도 하나의 사단 정도는 만들어진 것 같다. 예전 멤버들과도 불화로 헤어진 게 아니니까, 새 작업 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작품들이 대개 인천 배경인데, 앞으로도 계속 인천에서 찍을 예정인가?

특별히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삼아야 하는 일이 없다면, 내가 인천 사람이니 애향심이 있기도 하고, 영화가 저예산이다 보니 에너지를 불필요한 데 쓰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다. 그리고 인천이 영화 찍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구도심, 신도심, 공항, 산, 바다, 들, 산동네, 차이나타운, 일제 강점기 때 개항장……. 정말 다양한 풍경이 있거든.

프리프로덕션부터 포스트프로덕션까지 모두 직접 담당하나?

〈숫호구〉 전까지는 전체를 다 스튜디오에서 해결했다. 영화 음악도 내가 작곡해 보려고 프로그램을 끄적이다 실패한 적도 있고.(웃음) 어느 순간, 특정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좋겠다 싶더라. 그래서 이젠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분들께 맡긴다. 음악은 외부에서 전적으로 진행해 주고, 두 번째 영화부터는 컬러 그레이딩도 외부에 의뢰하려고 한다.

영상 교육 활동도 하고 있다.

영상 교육이나 영상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이 많은 건,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꾸러기스튜디오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에너지의 원천은 같이 영화로 놀아 보자, 영화를 즐겨 보자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감이다. 그걸 나와 내 친구들끼리만 공유한다면 결국 꾸러기가 지향하는 C급 무비가 지속 가능한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말고도 이런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교사 출신이다 보니 미디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표현할 수 있는 자와 표현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 같은 걸 더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우리같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찍는 집단이 많아지는 걸, 기존 영화판에서 견제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도나도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의 밥그릇을 뺏어야만 살아남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더 새로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함께 살아가는 길 아닐까.

동네극장 DGV는 재개관 예정이 없나?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언젠가 다시 여는 게 소원이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정말 꿈같은 공간이었다. 사람이 잔뜩 붐비고 환상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낭만이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냥 슈퍼 건물에 빔 프로젝터 연결하고 플라스틱 의자 갖다 놓고, 직접 만든 간판을 내건 곳일 뿐이었지만 참 좋았다. 지금은 소규모 극장이나 상영관이 꽤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비슷한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 인천에서도 작은 동네에 별안간 존재하는 극장이 주는 예쁜 느낌이 있었다. 지금은 그때 그 건물이 고깃집을 거쳐 인쇄소로 바뀌었다.

새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

원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다. 처음으로 투자를 받아 찍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작품이다. 해외 로케이션도 갔다 왔고. 제목은 〈시발(始發)놈〉. 제목 그대로 최초의 인류에 대한 얘기다. 패러디도 몇 장면 있는데, 다른 영화 패러디보다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패러디가 들어 있다. 일단은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반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

가편집해서 몇 사람에게 보여 줬는데 엄청난 혹평을 받았다. 자신감이 넘쳐서 어설픈 상태의 작업을 내놓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꾸러기스튜디오의 매력이 '생명력'이거든. 꾸러기스튜디오에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 이번에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영화를 다시 보니, 이대로 개봉했으면 큰일 났겠구나 싶더라. 지금은 가편집 버전의 난해함과 부족함을 만회하려고 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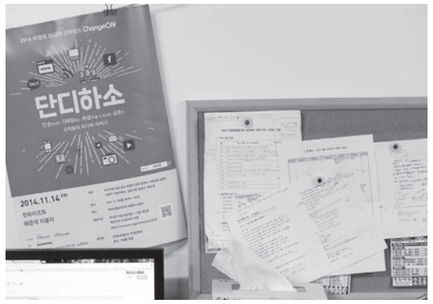
장래 희망이 있다면? 근미래와 먼 미래, 두 가지 버전으로!

가까운 미래로는, 〈시발놈〉을 잘 완성해 개봉하고 세 번째 작품 역시 잘 만드는 것. 먼 미래에 바라는 건, 진짜로 만들고 싶은 영화를 꾸준히, 오래 만드는 것.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야 할 테고, 지금까지 가치를 두고 해 왔던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지? 궁극적으론 꾸러기스튜디오가 새로운 영상 문화를 만든 곳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취재 김송요 / 사진 정윤영

미디어로 소통하는 팔방미인

미디어 협동조합 미디토리



다큐멘터리 제작부터 라디오 제작, 출판, 영상・사진・글쓰기 등의 미디어 교육, 공동체 상영, 연구 조사, 팟캐스트까지. '미디어'와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지 척척 해내는 곳이 있다. 부산 어디에서나 미디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나 환영이라는 미디토리다. 미디토리(meditory)란 이름은 미디어(media)와 스토리(story)를 합친 말. '미디어로 이야기를 디자인한다'는 모토 아래, 2011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첫 발을 뗀 뒤 지금까지 발이 닳도록 바삐 뛰어왔다.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꾸준한 작품 활동의 의지까지, 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들어 보았다.

미디토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 부탁한다.

김정근(이하 **근**) I 미디어 관련의 전반적인 일들, 미디어 교육, 영상 제작, 인쇄 디자인, 라디오 제작, 이주 노동자 대상의 팟캐스트 등 다양하다. 영상, 교육, 디자인 각각의 파트가 있고, 대표 박지선 감독을 비롯해 8명의 구성원들이 각 영역별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제작 전반 분야를 관리하는 제작팀장으로 있고, 김은민 감독은 상영배급 담당으로 미디어 교육, 계약 관련, 공동체 상영을 맡고 있다.

2011년 미디토리가 처음 생기고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김은민(이하 **민**) I 처음에 '평상필름'에서 활동하던 선배들이 미디어 활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자며 사회적 기업을 제안했다. 그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여 '미디토리'란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됐다.

근 I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가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 활동가들의 임금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수익을 좇아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의무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버거울 때가 있었다. 그러다 작년 10월쯤 결단의 시기가 왔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관계는 평등하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모든 구성원이 1인 1표로 동일한 권리를 갖는 거다. 결정과 합의가 더뎌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외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부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각자 담당이 있지만 협업이 많을 텐데, 의견 공유는 어떻게 하나?

민 I 연초에 굵직한 사업들을 결정하고, 각자가 맡을 사업을 나눈다. 중간에 미디어 교육이나 영화 제작 같은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판단하고. 보통 상시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 공유를 한 뒤, 파트별로 나누어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의 분야를 배우게 될 것 같다.

근 I 그렇다. 예를 들면 김은민 감독은 처음에 포토샵을 켤 줄도 몰랐다.(웃음) 나 역시 영상을 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인쇄 디자인 영역을 맡는다든지 라디오 제작을 하기도 한다. 라디오 제작의 경우 일종의 제작단이 꾸려져 진행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을 접해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함께하면서 다른 영역을 배우는 경험을 한다.

라디오 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

근 I 부산 MBC 〈라디오 시민세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시민들에게 채널이 열린다.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활동가들이 간사로 있으면서 함께 소재나 커리큘럼을 기획해 취재하고 풀어내는 퍼블릭 액세스를 하고 있다. 지역민들만 아는 주요한 문제들을 다루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이라는 코너에서는 부산의 일반 시민들을 만난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오지필름에서 '독립영화산책'이라는 코너로 독립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방송국과의 협조와 그 공간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작년에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근 I 〈버스를 타라〉를 찍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분들과 막역한 사이가 됐다. '정리해고투쟁위원회'에서 매년 추진위 사업이 끝나면 해고 관련하여 기록을 보관하는 자료집 제작 작업을 한다. 미디토리에서 그 제안을 받게 됐는데, 당시 희망버스는 한진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료를 모아 책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두 번째로 그간 기록했던 것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자고 했다. 그게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이다. 정리해고투쟁위원회에서 책과 영화를 위해 일정 정도 투자하고, 우리가 펀드를 받아 진행했다. 노동자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한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종이배를 접는 시간》이라는 책이 나왔다. 미디토리의 허소희라는 친구와 김은민 감독, 박지선 대표가 집필하고 오도엽 선생님이 감수해 주셨다.

김은민 상영배급 담당

김정근 제작팀장

책이 기록과 소장의 의미도 있지만 미디토리 안에서 수익이 되는 부분은 없나?

근 | 없다.(웃음) 간간이 사 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수익이 되지는 않는다. 11월에 미디토리가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부산에서 열리는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체인지온'을 주최/주관하게 됐는데, 김진숙 지도위원님이 강의할 때 《종이배를 접는 시간》을 참석자 배포용 도서로 사용하시겠다 해서 감동받았다.

책이 출간될 때 배우 김꽃비 씨를 주인공으로 북트레일러가 제작됐다. 북콘서트도 했고.

민 | 서울에 올라가 직접 촬영, 편집을 진행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전문으로 다루다 보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선 같이하려고 한다.

미디토리 안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은 어떻게 진행해 왔나?

근 | 미디토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총 세 편이다. 퍼블릭엑세스 제작팀과 함께 내가 연출한 희망버스 이야기 〈버스를 타라〉, 여성 신발 노동자를 다룬 박지선 감독의 〈전설의 여공〉, 그리고 내가 연출해서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인 〈그림자들의 섬〉이다. 김은민 감독이 조감독으로 참여해 기획, 구성을 맡았는데, 구성원이 함께 하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각자의 역량이 길러지는 면도 있다.

공동체 상영과 공동체 배급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민 | 정기적인 상영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나가거나 우리가 직접 제작한 영화를 배급, 상영하기도 한다. 〈버스를 타라〉, 〈전설의 여공〉을 직접 배급하면서 공동체 상영 진행을 했고, 작년에는 〈송전탑〉과 〈765와 용회마을〉 배급을 했다. 정기 상영회로는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초록영화제에 미디토리 역시 함께 결합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재개발 지역인 만덕 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정기 상영회도 매월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 상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민 | 노동 관련 다큐멘터리 기획전에 〈전설의 여공〉, 〈버스를 타라〉, 〈잔인한 계절〉을 상영했었다. 첫 상영인 〈잔인한 계절〉에 환경미화원 분들을 초대하려는데, 오전까지 청소를 하고 바로 오셔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울 것 같다는 전달을 받고 마음을 접었었다. 그런데 극장에 한 시간이나 일찍 40여 명 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

미디어 교육은 굉장히 지역 밀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

민 | 대부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이 이뤄지는데, 기본적인 교육 방침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터민, 저소득층 아이들, 장애인, 어르신들까지 사진 혹은 글쓰기 등의 교육을 한다. 우리가 직접 기획하는 교육도 있는데, 부산의 반송 지역에서 〈'청년 보통씨' 잡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최근엔 금속노조 분들과 장기 투쟁 사업장에서 카메라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영상 교육을 진행했다.

미디토리가 부산에 기반을 두고 4년째 활동해 왔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근 | 연대를 많이 다니다 보니 노동 사업장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 미디토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 그럴 때는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미디토리 내부에서 각자 느끼는 좌표는 다르겠지만 이게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인 것 같다.

민 | 미디토리는 협동조합의 이념과 비슷하게 지역 사회와 함께 미디어와 영상 교육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디토리가 미디어를 기반으로 생긴 곳이니만큼 앞으로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한다.

미디토리 안에서 꼭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근 | 다들 진저리 치겠지만(웃음) 다큐멘터리를 계속 하고 싶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싶고, 내가 프로듀서가 되어 구성원의 작품들을 만들고 싶기도 하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각자가 가진 역량을 영상으로 소통하고 싶다. 그렇게 사회 문제나 지역 문제들을 함께 머리 맞대고 작품으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길 바란다. 두 번째로는 지역 내 진보언론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지역 현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내가 지역에 산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라디오 제작 등을 활용해 진보 언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목표다. 사실 이 부분은 단지 희망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라서 기대가 크다.

취재 김도란

김경묵 민용근 대담: 양심적 병역 거부

Scene 1. 2003년 김환태 감독이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혹은 평화주의적인 신념이나 국가 제도에 대한 거부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담은 최초의 영화였다.

Scene 2. 2013년 민용근 감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옴니버스 인권 영화 〈어떤 시선〉에 참여하면서, 병역 거부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얼음강〉을 만들었다. 그 후 한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다. 병역 거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한 책을 내면 어떻겠냐고. 민용근 감독은 병역 거부자, 병역 거부자의 어머니, 유신 시대에 7년 10개월 감옥 생활을 한 종교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판사,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 12명의 사람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었다.

Scene 3. 2014년 4월 입영 통지를 받은 김경묵 감독은 5월 13일 입영일에 입영을 거부했다. 병역 거부를 선언한 그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소견서를 쓰고 재판을 준비했다. 페이스북에 [양심없는 것들: 병역거부자 김경묵 후원회]가 만들어졌다.

김경묵 감독의 일차 심리 공판을 2주 앞둔 11월 첫 주말, 김경묵 감독과 민용근 감독이 만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눴다. 병역이 아니면 징역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두 사람의 조용한 분노를 지면으로 전한다.

민용근(이하 **민**) |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연출자, 프로듀서, 영화 관계자들을 데리고 서울의 특이한 공간을 로케이션 투어 시켜 주는 팸투어 갔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나는 인권위에서 영화 제안을 받고 막연하게 병역 거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팸투어 때 마침 옆자리에 경묵이 앉았다. 지금도 기억나는 공간이 영등포 교도소랑 구치소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철거를 앞둔 그 공간을 경묵과 둘이서 둘러보는 느낌이 남달랐다. 그때 경묵이 병역 거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

김경묵(이하 **김**) | 2년 전 이맘때였던가. 그 팸투어에 갔던 게 구치소가 포함돼 있어서였다. 일반 사람들은 구치소를 볼 기회가 없지 않나. 내 입장은 촬영 로케이션을 본 게 아니고 내가 병역 거부를 하면 어떤 곳에서 살게 될 것인가 궁금했다. 그런데 충격이었다. 생각보다 공간이 너무 작은 거다. 대여섯 명 사는 혼거방이 내가 사는 방의 삼분의 일 정도 수준이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형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데 살 수 있나." 그때 형 표정은 담담했던 것 같다. 속마음은 달랐겠지. 그때 난 형이 병역 거부 영화를 찍는 줄 모르고 같이 갔으니까.

민 | 만약 나 혼자 갔거나 경묵이 아닌 다른 분들하고 돌아봤으면, 교도소란 곳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구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그쳤을 텐데, 경묵이 옆에 있으니까 나도 분리시키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그곳의 좁은 공간에 정말로 1년이건 2년이건 갇혀 지낸다는 것이 몸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다녀와서 병역 거부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했던 것 같다. 경묵이랑 같이 감옥을 보고 오니까, 감옥에 간다는 게 어떤 건지 몸으로 약간 느껴지는 거다.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지킨다고 하는 게 다르게 느껴졌다.

김 | 작년에 형이 〈얼음강〉 찍었을 때 편집본 모니터링하러 갔었다. 그때만 해도 난 병역 거부자로서의 모니터링을 하기보단 영화 하는 사람으로서 불렀다고 생각했다. 영화 보고 나름의 감상을 크리틱하듯 얘기했고 영화에 대한 인상이 깊이 박히진 않았다. 그러다 부산국제영화제 때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작년에 본 영화 중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다. 그때는 내가 병역 거부자로서 봤던 것 같다. 편집본 모니터링할 때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단 엄마의 시선에서 영화가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아들의 입장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거다.

민 | 경묵이 처음 신체검사 받을 때가 2004년이지? 그때만 해도 병역 거부 관련한 논의가 활발했다. 2000년대 초반에 여호

민용근 감독

와의 증인이 아닌, 불교 신자인 오태양 씨가 평화주의 신념으로 병역 거부 선언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다. 그 뒤로 비슷한 신념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임도 생기면서 일종의 사회 운동처럼 됐고, 판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TV에서 대체복무 도입 찬반 토론도 하고.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에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안까지 마련을 했었다. 근데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전면 무효화를 했다. 이젠 아예 이슈화도 되지 않는다.

김 | 요즘 문제는 군대 내 가혹 행위가 큰 이슈가 됐다. 군폭력.

민 | 근데 이게 결국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군폭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군대 문화를 바꾼다, CCTV를 설치한다, 휴대폰을 준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오는 게 문제다. 모병제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모병제로 많이 바뀌었다. 대체복무는 수십 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대만, 독일, 많은 나라들이 모병제다. 결국에는 병역 거부 문제와 만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예전보다 더 암흑기인 것 같다. 대체복무제가 백지화된 기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다 들어갔다.

김 | 지난 몇 년간 대체복무제가 무효화되면서 그전에 했던 활동들이 다 무효화됐는데,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선언하고 들어가고, 선언하고 들어가고 하는 식의 상황이 돼 버렸다. 내 경우는, 난 어릴 때부터 군대를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군대가 내 인생에 없었는데, 신체검사를 하고 등급이 나오면서 군대에 가야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다.

민 | 몇 급이 나왔어?

김 | 3급. 신체검사를 1년 동안 받았다. 소견문에도 쓴 건데, 정신과 쪽으로 1년간 재검받으면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왜 군대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신체검사를 오래 시키면서 뺑뺑이를 돌리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힘겹게 만드는 나라에 대해서, 나라도 병역 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등급이 현역으로 나오면, 나는 병역 거부를 해야겠다 그때 결심했다. 근데 내가 군대를 거부하는 거지 감옥을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에 대한 문제는 그 뒤에 생각하기 시작한 거다. 대체복무제가 전면 무효화되고 나는 상황을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고.

김경묵 감독

민 | 예를 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면 다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2004년, 2011년 두 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두 번 다 합헌 판결이 나왔다.

김 | 군대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계속 뜨거운 감자였고 어떻게 시스템이 변할지 정말 얼음판에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싶었는데, 올해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와서 병역 거부 선언을 하게 된 거다. 4월에 영장이 나왔고 5월에 병역 거부를 했다. 입영일에 병무청에 연락해서 병역 거부 의사를 전달한 거지. 병무청에서 경찰에 기소해서 경찰 조사 받고, 그다음 검찰 조사 받고, 검찰이 재판부에 기소해서,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심 진술하는 날이 11월 19일이고, 선고 기일은 따로 있다.

민 | 만약 경묵이 일심 후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일심 선고 공판날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판사 재량에 의해서 구속할 수 있는 날짜를 따로 지정해 줄 수도 있다.

김 | 병역 거부 선언 전후 상황이 많이 다르다. 머릿속으로 알던 것을 체감하는 거다. 이전에 국가 폭력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가 막상 맞닥뜨렸을 때 오는 마음의 변화가 너무 크더라. 언어 이전의 감정, 상태의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한 개인의 삶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지 많이 겪고 있다. 내 개인적인 흔들림도 있지만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의 변화도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였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고통 받는 것을 보니까 그 핵심적인 원인인 나도 많이 힘들어졌다.

민 | 여름에 한강에서 맥주 먹으면서 소견서 얘기를 했었지. 소견서를 쓰는 것 자체가 자기 신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 병역 거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나를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다. 병역 거부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소견서는 이 사람에게 가하는 또 하나의 무언의 폭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 소견서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뭘 쓸지 몰라서라기보다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쓸 수 있는지 몰랐다. 처음에는. 이 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나 자신을 계속 설명해야 한다는 거, 그걸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나는 이 선택에 대해 정당하고 옳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 줘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있는 거다. 소견서 쓸 때도 마치 잘 쓰인 한 편의 논문이나 기사처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료 조사를 해 놓아서 잘 정리해서 가져다 붙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쓰니까 아무래도 내 이야기 같지 않았다. 내 말 같지가 않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느낀 것들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다.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와 병역 거부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나한테 중요했던 것이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해 계속 일어났던 군대 내 폭력, 가혹 행위들도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했다. 혹은 국가에 불복종한다든지, 국가 폭력에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입장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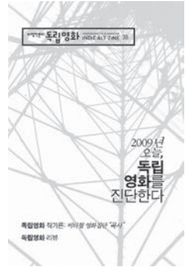
민 | 병역 거부는 단순히 평화주의 신념에 의해서, 자기 양심에 의해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 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폭력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국가와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당장, 2~3년 내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공감대 형성이 된다. 아무리 법 제도가 바뀌어도 많은 사람들이 병역 거부자를 욕하고 지금처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면 바뀌는 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경묵이 썼던 소견서도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뷰하고 행사 하고 이런 것들 역시. 서울독립영화제 때도 기획하고 있는 행사가 있다.

김 | 들어가기 전에 영화제 오는 사람들과 작별도 할 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또 운 좋게 형 책이 그때쯤 출간되니까 시기적으로 잘 맞겠다 싶어서 이야기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들어가면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싶은데 책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밖에서 책을 보내 주면 내가 독후감을 써서 보내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 책을 택배로 밖으로 보낼 수가 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게 외부와의 유일한 접촉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넣어 달라. 나도 많이 보내 줄 테니. 페이스북 후원 페이지에 수감돼 있는 장소와 연락 방법이 게시가 될 거다.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된다.

민 |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어디에 수감돼 있는지 알 수 있고 수감번호 누르면 이메일 쓸 수 있다. 다음 날 인쇄가 돼서 전달이 된다. 이 문제가 단순히 군대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 있는 문제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없어도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 관심 많이 가져 주고, 편지 많이 보내 주길.

취재 윤도연

《독립영화》, 마흔세 권의 기록에 대한 기억



"잡지 하나 생긴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기분만은 그만큼 뿌듯하네요. 만날 다른 영화 잡지들 구석만 차지하다 이젠 온전히 우리의 시선과 목소리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 김동원(당시 한독협 대표), 《독립영화》 창간호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가 1999년 5월 창간한 독립영화 전문 잡지 《독립영화》는 이효인 선생이 주축이 된 편집부와 함께 출발하여 그동안 많은 필진들의 노력으로 독립영화의 다양한 기록을 담아내며 43호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10년간 계간지 형식으로 발간되다, 2009년 9월 38호부터 한독협 비평분과가 기획과 편집을 맡으면서 비평전문지로 개편되었고, 현재는 연 1회 발간된다. 2002년 《독립영화》 편집기자로 시작해 12년째 한독협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연 사무국장의 기억을 들춰 보았다.

이지연(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사실 난 그전에 아동용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시나리오 쓰는 일을 했었어, 아주 짧게. 그러다 퀴어아카이브 자원활동을 했는데, 그때 만난 송승민 언니가 27회 한국독립단편영화제(2002년 서울독립영화제로 명칭 바뀜) 자원활동가 팀장 자리에 날 추천해 줘서 일하게 됐어. 그게 끝나고 이제 뭐 하고 살까 고민하던 차에, 한독협에서 《독립영화》 편집기자를 뽑는데 생각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덜컥 시작했지. 영화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활동가 마인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극작과를 나왔지만 교정을 배운 적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마냥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았어. 2002년 5월에 출근해서 3개월 꽉 찬 수습기간을 거쳐 지금까지……. 내 20대를 한독협에서 보내고, 이렇게 30대도 보내고 있네.

내가 들어간 2002년은 편집부가 편집위원회로 바뀔 때였는데, 상근하면서 책을 전담해서 정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 13호부터 참여했어. 내 역할은 원고를 받는다거나 디자이너와 뭘 한다거나 인터뷰를 가고 사진을 찍는 그런 일들. 그렇다고 편집기자 일만 한 건 아니고 한독협 사무국원이면서 편집기자 일도 하는 거였어. 뭐든 다 처음이었어. 지금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는 잘 몰라서 마감 넘기면 절대 안 되는 줄 알고. 당시 원승환 한독협 사무국장이 13호 책임편집위원이었는데 원고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내가 막 닦달했지. 장문의 메일을 썼던 것 같아. 승환 형이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 줬던 기억이 나네, 미안하다고. 그때 알았지. 진짜 데드라인이 언제구나.(웃음) 그때 디자이너가 지금은 각종 영화제와 책자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진아 디자이너였는데, 진아 언니한테 사진 찍는 스킬과 노하우를 배우기도 하고 그랬지. 지금 알고 있는 노하우들은 그때 알게 된 것들이 많아.

첫 인터뷰였나. 부산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이랑 김상화 대표님 인터뷰를 하러 조영각 편집위원이랑 같이 부산에 가게 됐거든. 거기서 생전 처음 고래 고기도 먹어 봤지. 간혹 심각한 이야기도 취재 중에 나오잖아. 예를 들면 독립영화란 뭐냐, 한독협의 역할은 어때야 한다……. 그땐 내가 독립영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편집기자로 활동하며 사람들이 독립영화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서서히 알게 됐어.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편하고 좋지, 지금은 독립영화의 아주 올드 멤버들이긴 하지만. 그때 경험들이 내가 활동하는 데 바탕이 된 것 같아. 바로 실무만 했으면 잘 모르지 않았을까.

13호부터 27호까지는 편집기자로, 27·28호 합본호부터 37호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어. 2009년 38호부터 한독협 비평분과에서 담당하게 됐고. 사실 그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책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었는데, 고맙게도 비평분과에서 맡아 준 거야. 독립영화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과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애석함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 이때 비평전문지로 개편이 돼서, 지금의 구조가 된 거지. 비평분과에서 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모으고, 한독협 사무국에서는 책 만드는 최소 비용을 마련하고. 책이 지금처럼 1년에 1번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커. 계간지 4권을 만드는 비용은 만만한 게 아니니까. 재능기부 하듯 애써 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을 꾸준히 낼 수 있었지. 사무국에서 백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맙고. 특히나 사무국에선 그 일을 했던 게 나니까. 아직 아이디어도 많은데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큰 숙제를 못 본 척 달고 있는 기분이야, 개인적으론.

취재 신미혜

낯설지만 맛난 '요리'를 즐겨 주시길

전병원

전북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를 받고, 전북대학교 영화영상기획 전공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과 전북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왔으며, 전북대학교 인문영상연구소 전임 연구원으로 있다. 영화 관련 글을 다수 발표했으며,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영화제를 준비할 때마다 하게 되는 생각은 몸에 밴 습관처럼, 밥 먹듯이 하지 않기 위한 다짐들이다. 행사를 치르듯, 일을 처리하듯,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명절에 가족을 만나듯, 관습적으로 영화제를 대하지 않기 위한 주문을 속으로 되뇐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 이미 정해져 있는 섹션들과 영화제를 치르는 형식들이 정형화돼 있다 보니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어쩌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결과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가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영화제를 낯설게 대하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다. 또한 많은 관객들이 전북독립영화제와 함께할 조금은 낯선 경험에 작은 의미가 담기기를 희망한다.

열네 번째 전북독립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지역 영화 경쟁 부문인 온고을 섹션의 출품작이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다. 작품의 소재나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었다. 영화과 학생 작품이 주를 이루던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영화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전북독립영화협회가 5년 전 '마스터와 함께하는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동유럽식 영화 교육 방식을 수용한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리 지역 사정에 맞는 방식일지 우려들이 많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각종 제작 지원 심사 명단에서, 전북독립영화제 출품자 명단에서, '제작스쿨' 교육을 접한 수강생과 스태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느린 발걸음이지만 조금씩 단단하게 자리 잡아 가는 지역 영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

제14회 전북독립영화제 슬로건은 '눈물 없이 양파 써는 법?'이다. 올해 우리가 선택한 슬로건은 '물음표'(?), 질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누군가를 향한 질문이다. 대개 영화제 슬로건은 그해 영화제의 콘셉트며, 그 영화제의 정체성을 알리는 도상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깃발 꽂듯이 당당한 구호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전북독립영화제 슬로건은 앞서 가는 자의 손에 든 깃발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답을 말하지 않고 묻는 것만으로도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스크린과 관객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낀다. 특히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때면 스크린을 등지고 관객을 향해 앉아 있는 감독들과 스크린을 향해 주시하고 있는 관객 사이가 보이지 않는 벽으로 구분된다. 이 경계는 쌍방 간의 권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 무서워진다. 눈앞에 서 있는 두꺼운 철벽이라도 허물고 뚫으면 그만인데, 보이지 않으니 더 무섭다. 최소한 벽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지 않을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고 싶었다. 우선 상영 공간부터 변화시켜 보기로 했다. 관객과 감독 간의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3층짜리 극장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같이 웃고 깔깔대며 보던 영화가, 그 극장이 떠올랐다. 요즘 극장에 가면 크게 웃는 것도, 자세를 바꾸는 것도 모두 주변을 신경 쓰게 된다. 극장이 언제부턴가 함께하는 공간이 아닌 각자의 영역을 지닌 개인 감상실처럼 됐다. 스크린에 투영되는 영화는 1대 다수를 상대하는 권력자가 됐다. 왠지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할 예의가 많아졌다. 우리가 영화에게 부여한 그 권력을 다시 찾아오고 싶었다. 관객이 주인인 극장, 맘껏 영화를 내리깔아도 되는 극장, 그렇게 영화와 감독과 마주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고자 했다. '온고을 영화사랑방'은 가난이 묻어 있는 극장이지만 우리가 주인인 극장일 것이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맛만 있으면 용서가 된다. 영화제는 영화가 맛나야 한다. 독립영화제에 대한 선입관 중 하나가 그럴 듯한 딱히 맛보고 싶은 게 없는 상차림이라는 것이다. 손님을 초대하기엔 부족해 보이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끔 불친절한 주인을 만나기도 한다. 이러면 다신 찾고 싶어지지 않게 된다. 좋은 독립영화를 만난다는 건 낯선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맛집과 같다. 기대하지 않고 먹었던 열무국수, 기대하지 않고 먹었던 장터국밥, 기대하지 않고 찾아와 준 인생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무러면 어떤가? 지금 우리 앞에 맛본 적 없는 신기한 요리가 쌓여 있는데.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극장전 4

— 저기, 말씀 좀 묻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극장 앞으로 모인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어두운 표정을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고 I는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죽은 친구를 극장에서 만나긴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

남자는 말했다.

—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I는 따졌다가, 마침 뒤에 서 있던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언제 나타났지.

남자는 되물었다.

— 아니세요?

— 아닌데요. 그쪽이야말로 죽은 사람 아니에요?

둘은 서로를 잠시 쳐다보았고, 남자는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I는 자신이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I는 극장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들 중에는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도, 그리고 그냥 영화를 보러 온 불쌍한 관객도 있을 것이다.

친구가 말했다.

— 무슨 일이야?

— 이상한 말을 들었어.

— 그래?

친구는 정확히 어떤 말이었는지 되묻지 않았다. I가 너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친구는 마지막으로 영화나 보러 왔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이라면…….

—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는데…….

— 사는 게 다 뜻대로 되진 않으니까.

친구의 대답에, I는 화가 났다.

— 뜻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면서.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못 본 거야. 제때 나타나기만 했어도…….

— 내 뜻대로 안 온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뜻이었냐고 따지려다가, I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아이가, 형제와 자매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소리쳤고, 아니면 설득하고 있었고, 울거나, 화를 냈다. 하지만 상대방은 냉정한 표정이었다.

친구는 말했다.

— 남들 갈 때 가야지.

I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매표소로 걸어가 표를 두 장 샀다. 표는 곧 매진이 되었다. 소문이 빨리 퍼졌나 보다, I는 생각했다. I와 친구는 나란히 앉아서 극장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평소 I는 행인의 옷차림을 본 적은 있어도, 죽은 사람일지 산 사람일지를 고민해 본 적은 없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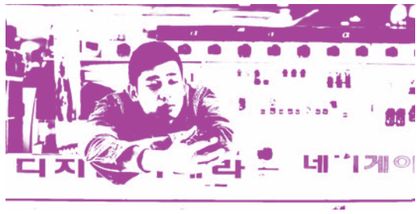
— 왜 다들 그걸 물어봐?

친구는 되물었다.

—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는 거야. 다들 혼란스러워하니까. 그 이상 의미를 두지 마.

김이환

판타지 소설가. 〈절망의 구〉, 〈오픈〉 등의 장편소설을 출간했고 5편의 공동 단편집에 참여했다. 지난여름, 새로운 연작 장편소설 〈디저트 월드〉를 출간했다. 독립영화를 좋아하여 몇몇 곳에 독립영화 리뷰를 싣기도 했다. 개인 블로그에서 이런저런 글을 확인할 수 있다.
blog.naver.com/grovenor



최시형, 이우정, 정재훈, 김태용, 이정홍, 정혁기 & 조현철 감독
〈서울연애〉

I는 더 이상 물어보고 싶은 말이 없었다. 단지 내가 마지막이라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되도록 부모님에게 가 보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 상영 시간이 됐을 때, 두 사람은 상영관으로 들어갔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몇 개의 광고가 흐르고 비상구를 안내하는 동안, 사람들이 핸드폰을 진동으로 돌려놓는 시간 동안 I는 친구와 대화했다.

팸플릿을 읽던 친구는 물었다.

— 옴니버스 영화였네. 여러 편이 합쳐진. 너는 알고 있었어?

— 응.

— 판소리 권투는 또 뭐야?

I가 자신도 모르겠으며 아마 영화 속에서 설명이 나올 거라고 대답하자, 친구는 말했다.

— 나 죽은 사이에 새로 생긴 권투인 줄 알았네.

극장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현실에서 멀어지고 영화에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커다란 슬픔이 I를 사로잡았다. I는 친구를 만나면 주고 싶었던 많은 선물, 많은 말들을 생각했다. 주지 못한 기회들, 헛된 희망들, 날려 버리고 만 감정들을 생각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친구는 딱 한 번 말을 걸었다.

— 그동안 고마웠어. 살지 못한 인생을 살아 보니 좋더라. 너는 나처럼 일찍 죽지 말고 오래 살아야 돼.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뭘까 생각했다.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친구는 죽었고 I는 살아 있었다. 친구는 곧 돌아갈 것이다. I는 극장에 남는다. 지금은 그것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였다. 영화가 끝나면 불이 켜진다.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차이가 확실해지고 혼란은 사라질 것이다.

극장 안에 앉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I는 생각했다.

어느 순간, I의 양옆에 앉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I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는 살아 보지 못한 삶을 살아 보자고 생각했다.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I는 지금까지 친구와 같이 본 영화를 떠올렸고, 앞으로는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도 보자고 마음먹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자고 결심했다.

영화가 끝났을 때, 사람이 가득했던 좌석에는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I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 나는 계속 살아야 하니까.

어쨌든 친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두운 표정의 남자는 죽은 사람이 극장 앞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었냐고 사람들에게 눈치도 없이 물어보며 돌아다녔다. 극장 밖은 늘 그랬듯이 비가 내렸다.

I가 걷기 시작하자 비가 그쳤다.

EDITORIAL

남다른 독립영화 제작사들

2014년의 마지막 NOW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독립영화 제작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상구네'는 김태일 감독의 일가족 영화 제작 공동체입니다. 아빠 김태일, 엄마 주로미, 아들 상구, 딸 송이, 네 식구가 함께 다큐멘터리 '민중의 세계사' 10부작이라는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월愛〉, 〈웰랑 뜨레이〉에 이어, 지금은 팔레스타인에서 세 번째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신연식 감독이 이끄는 '루스 이 소니도스'는 점차 속도를 더해 가며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화마다 다양한 제작 방식을 실험하면서 〈페어러브〉, 〈러시안 소설〉, 〈배우는 배우다〉, 〈조류인간〉 등을 선보여 왔을 뿐 아니라, 연기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영화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난여름 'C급 영화' 〈숫호구〉로 관객을 들었다 놨다 했던 '꾸러기스튜디오'의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러디 영화를 온라인에서 상영하고, 동네극장을 운영하고, 영화 제작에 관한 책을 내면서 발휘해 온 그들의 패기와 도전 정신을, 이제 곧 두 번째 장편영화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의 '미디토리'는 영화'만' 만드는 '영화사'는 아닙니다. 영상, 사진, 라디오, 인쇄물 등 모든 분야의 미디어를 통해 연대의 장을 넓혀 가고 있는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공동체 상영과 배급,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네 곳의 독립영화 제작사/공동체들은 각기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영화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ISSUE에서는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김경묵 감독과, 병역 거부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준비 중인 민용근 감독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며 고민을 주고받아 온 두 사람은 병역 거부를 둘러싼 쟁점들을 차근차근 짚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당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독립영화 구술사 TELL ME SOMETHING에서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지연 사무국장이 독립영화 잡지 《독립영화》와의 인연을 들려줬습니다. 대구, 제주, 부산을 거쳐 전주에 온 이어달리기 칼럼 RELAY TALK는 전북독립영화제 전병원 집행위원장의 사려 깊은 초대의 말을 전합니다. 올 한 해를 함께해 온 김이환 작가의 SHORTY STORY 〈극장전〉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별이 있었고, 새로운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2015년의 NOW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서울아트시네마
스폰지하우스
씨네코드 선재
씨네큐브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아트나인
아트하우스 모모
인디스페이스
인디플러스
필름포럼
한국영상자료원
KT&G 상상마당 시네마
KU시네마테크
KU시네마트랩
미디액트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땡스북스 홍대점
책방 이음
책방 풀무질
후마니타스 책다방
상수동까페
성영태 커피 하우스
아디스아바바
유어마인드
이리카페
카페 공드리
경기/인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강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대전/충남/충북
대전아트시네마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광주/전남
광주극장
전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지프떼끄)
대구/경북
동성아트홀
안동 중앙극장
부산/경남
국도예술관
영화의전당
프롬더북스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구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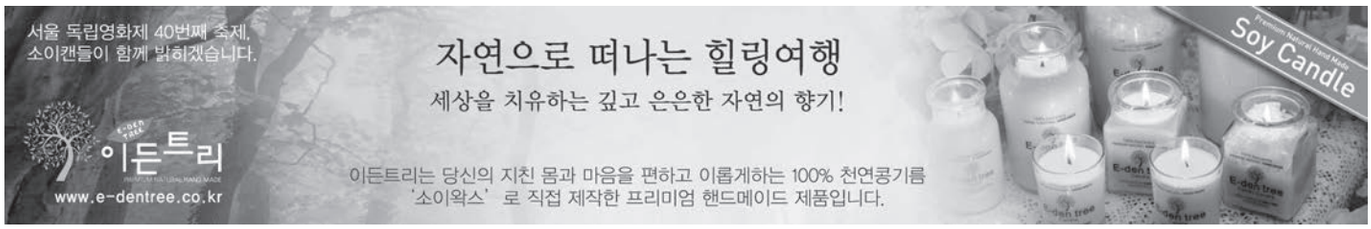
1. 서울독립영화제 후원모임 인디당에 가입하면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www.siff.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종류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1호당 우송료 1,000원을 부담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101-666706 (예금주 서울독립영화제)
   신청 및 문의: press@siff.or.kr / 02-362-9513
   (신청자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독자 마당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에 대한 독자 의견을 들려주세요.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감상, 취재를 바라는 인물이나 장소,
따끔한 충고와 제언, 힘이 솟아나는 격려 등을
이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올려 주시면
작은 선물과 함께 다음 호 NOW를 우송해 드립니다.

editor@siff.or.kr www.siff.or.kr Twitter@siff_kr fb.com/siff.kr



NOW

NO.6 | 2014.11.25

발행처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책임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편집주간 **조영각** 기획총괄 **김동현** 편집장 **김은아**
편집위원 **김도란, 김송요, 김지은, 박현지, 신미혜, 이도훈, 최혁규**
사진 **강성일, 박지수, 유수진, 최이슬, 정윤영** 디자인 **이혜경** 인쇄 **한울타리**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공덕동 82-9) 2층 (121-800)**
전화 **02-362-9513 02-334-3166** 팩스 **02-363-3154** 이메일 **prog@siff.or.kr**
홈페이지 **www.siff.or.kr http://indienow.kr/**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